

페르시아만의 명칭

H. Malmirian
(이란 국립지리원장)

역사와 다른 증거들이 확증을 줄 수 있고, 문헌을 있는 그대로 작성했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남겨진 가장 오래된 지리적 기록에 의한 판단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한, 이란의 남부해안에 있는 수로는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불려왔다. 고대인과 유명한 고대 지도학자의 거대한 권력에 의해 기록된 고대 문헌은 현대 사회에서도 인정된다. 예외없이, 그들은 이란의 남부해안이 2500년 전부터 변함없이 페르시아만 또는 페르시아만을 의미하는 Bahr-e-Pars로 불려왔음을 보여준다. "아라비아 만 Arabian Gulf"이라는 지칭은 "페르시아만"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오직 홍해 (또는 Qolzom Sea)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두개의 바다, 즉 페르시아만과 홍해에 대하여 두 가지의 이름을 사용한 최초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페르시아 또는 아라비아 언어라는 인자들은 절대적으로 이러한 명명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페르시아만 지명의 기원에 관련된 출처를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들 중 많은 것들이 대부분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쓰여진 고대 문헌이며, 나머지는 페르시아어 또는 아라비아어로 번역된(종종 불어, 영어, 독일어 등으로 번역된 형태에서 유용한) 무슬림 과학자와 지리학자들의 저작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저작들은 다음 두 가지중 하나이다. 논리적으로 그리스 학자들의 연구를 따르거나 그것에 기초해 있는 경우, 또는 독창적인 연구의 결과이며, 이슬람의 지리적 전통에 따라서 저술된 경우. 간단한 연구는 그들이 만장일치로 모두 페르시아만을 의미하는 Bahr-al-Fars 또는 Khalij-e-Fars로 "Darya-ye-Pars"를 언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BC 5세기 이후로, 육지로 둘러싸인 페르시아만의 바다에 대한 지리적 명칭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역사의 시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만이라는 용어는 세계의 살아있는 언어에서 자리를 잡아왔고, 모든 국가들이 그들 자신의 언어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